

너희 소위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목사들이여.

대체 왜 이러는가.

예수를 팔아 장사를 하는 새리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아.

대체 왜이러는가.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리로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때 그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모세의 언약을 부정할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2천년을 잡시로 떠돌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 민족이 조금 잘 나가는가

너희 목사들이 교만하게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하여 소의 생가죽을 벗겨 굿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진 못할지언정 감히 그를 지지하여 추종하는도다.

진정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도다.

출가한 중들아 보아라

대체 부처님의 자비는 어디로 갔건데,

소의 생가죽을 벗겨 무도한 살생을 하는 그런 괴법사에게 침묵하며,

물질을 쫓아 집회를하고 관용따윈 눈곱만큼도 없이 광분하는가.

대저 부처님의 자비는 그러하지 아니할진저 성불하기를 포기했는가

목사는 사랑이없고

중은 자비가 없네

정치는 사람의 일이지만

너희들은 신의 일을 하는 자로써

어찌 사람의 일에 광분하는가

목사는 회개하고

중들은 깨달으라

민족을 떠나

사람 본연의 따뜻함을 찾고

중생을 구제하라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거듭나길

그대들에게 아무이름없는 무명초가 고한다